



어느 아들이 아버지에게 쓴 편지

아버지.. 세상에는 온통
어머니만 있고
아버지는
없는 세상인 듯합니다..

아들이고! 딸이고
다들 세상에서
우리 엄마만큼
고생한 사람 없다며
우리 엄마,
우리 엄마 합니다...

아버지
당신은
무얼 하셨습니까?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느라
묵묵히 집안에
울타리가 되고

담이 되었고
새벽같이 일터로 나가



더우나 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윗사람 눈치 보며
아랫사람에게
치밀리면서

오로지
여우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는 일에
일신을 다 바쳐오시지
않으셨나요?



내 새끼 입에
밥 들어가는 것이
마냥 흐뭇하고

여우 같은 마누라
곱게 치장시키는
재미에

내 한 몸 부서지는 것은
생각 않고
열심히 일만 하며
살아오지 않으셨나요?



예전엔 그래도!

월급날 되면
돈 봉투라도 내밀며

마누라 앞에 턱 놓으며
폼이라도 잡으며
위세를 떨었건만

이젠 그나마
통장으로
깡그리 입금되어
죽자고 일만 했지



돈은 구경도!
못해보고
마누라에게 받는 용돈이
부족하여

갓은 애교 떨며 용돈 받아
가며 살았습니다..

세탁기에 뽕 뽕 꼬인
빨래 꺼내어 너는 일도
청소기 돌리는 일도,
애들 씻기는 일도

분리수거하는 날 맞춰

쓰레기 버리는 일도
다 아버지,
당신의 몫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시대의 아버지들이
참 불쌍합니다..

결혼하고 당신을 위해선
돈도 시간도 투자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처럼 화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옷을 사치스럽게 사 입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일터만
오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정년퇴직하고
집만 지키는
아버지를 어머니
삼식이라며
힘들어하고,

딸들은 엄마
힘들! 게 하지 말고
여행도 다니시고
그러라지만

나가면 조금의 돈이라도
낭비할까 봐
그저 집이나 동네에서
맴도는 아버지



여행도 노는 것도
젊어서 해봤어야지요..

집 나와봐야
갈 곳도 없어 공원만
어슬렁 거립니다.

차라리
마누라 눈칫밥이지만

주는 밥 먹고
집에 들어앉았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시대의 흐름이라지만
마음이 아픕니다.



이 세상 모든

아버지들이여!
이제라도 당신을 위해서
사십시오..

요즘 장성한
아들 딸들이
일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엎혀살며

늙은 부모를 일터로
내모는 세상입니다
이런 현상을
누가 만들었나요



그건 어려서부터
자립심을 키워주기는 커녕
모든지 알아서 해주신
당신이 아니었나요

세계에서 부모에게
의지하는 걸로
"한국 젊은이가 일등"
이라네요..
참 슬퍼지네요..

= 옮긴 글 =



우리 벗님들~!
健康조심하시고
親舊들 만나
茶 한잔 (소주 한잔) 나누시는
餘裕롭고 幸福한
나날 되세요~^

